광주은행, 태풍피해 복구 500억 지원

금융당국, 보험료 선지급·대출금 납부 연장 등 전방위 대책 마련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28일 태풍 피해를 입은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자금 500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대출금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일부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해준다. 특히 태풍 피해금액 1억원 범위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28일 오후 태풍 볼라벤의 강풍 피해를 입은 평동공단 소재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은행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광주은행 제공〉

또한 피해업체 및 개인의 자금 대출시 최고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수출입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환어음 3개월 기한 연장 및 환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주은행은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은행, 보험, 정책금융 등에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자에게 보험금 납부를 유예하고 보험계약 약관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지원책을 보험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최장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 복구에 쓸 보험금은 24시간 안에 지급하되 태풍으로 보험사 점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인근 점포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견인차를 상습 침수 지역에 집중하여 배치해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설계사 등을 동원해 생활필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원리금 납부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특별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도 자체적으로 고객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해당 지역 관청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11월30일까지 업체당 3억원까지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500억원이다.

지원 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여신은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려준다.

태풍 피해를 본 개인고객에게는 12월 말까지 신용대출 금리(신규 · 만기연장)를 최대 1.0%포인트 내려주고 피해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생기는 연체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생명도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내년 1월까지 늦춰주고 대출금 원금 상환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이코노 & 비즈 피플 장성탁 정책금융공사 광주지사장

"온렌딩 대출 2천억원으로 확대"

호남 중소·중견기업 후견인 될것

"광주·전남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첫 국내지사인 광주지사를 이끌고 있는 장성탁(45) 초대 광주지사장의 포부다.

28일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 광주지사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면서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장 지사장은 "광주지사는 금융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 경제활성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며 "호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올해 2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사가 MOU(업무협약)를 맺은 중개금융기관(은행)에 자금을 대고, 중개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대출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간접대출이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도로·철도건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설비자금 및 R&D자금, 해외투자자금대출,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장 지사장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심층분석해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 지사장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후 1990년 산업은행에 입사해 산은경제연구소 산업분석 팀장, 2010년 한국정책금융공사 리스크관리 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금리 하락

7월 대출 年 5.45%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7월 시중금리가 일제히 내렸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였다. 이는 전달보다 13bp(bp =0.01%) 하락한 것이다. 2010년 12월(5.40%) 이후 최저다.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8bp 내린 5.20%, 기업대출금리도 14bp 떨어진 5.53%을 기록했다. 2010년 12월 이후(가계 5.08%, 기업 5.52%)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4%로 2010년 6월 4.62%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특정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협약대출때문에 118bp나 떨어진 6.71%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7월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렸다. 은행의 신규취급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줄었다. 기업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37.1%로 전월 39.3%에 비해 감소했다. 가계 신규 대출에서도 고정금리의 비중은 전월 41.6%에서 7월 39.2%로 축소됐다.

잔액기준으로는 기업대출의 34.5%, 가계대출의 14.9%가 고정금리로 나타나 전월보다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확대됐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생계비 155만원

4인기준 올보다 3.4% ⬆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약 155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익대표·민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인상률 3.4%를 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해 계산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4인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연합뉴스

先 여행 後 결제

목돈 덜고 소비자 보호…후불제 여행 인기

여행을 먼저 하고 경비는 나중에 내는 '후불제 여행'이 인기다.

28일 (주)후불제투어(대표이사 박정규·www.hubuljetour.co.kr)에 따르면 후불제여행 서비스는 매월 일정액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목돈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여행 후 잔금을 매월 적립해 납부하는 방식의 회원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기 때문에 목돈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선불여행은 돈을 먼저 냄으로써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반면, 후불제여행은 소비자가 만족을 경험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주)후불제투어의 상품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하나투어·모두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여행 상품도 가능하다. 또 100%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친지·지인 등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가 되면 환급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여행적금인 셈이다.

박정규 대표이사는 "후불제여행은 목돈 마련이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여행 만족도를 높인 고객위주의 신개념 여행 서비스"라며 "웰빙 여행을 일상으로 끌어들여 삶의 질과 행복 추구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1577-5978. /박정욱기자 jwpark@

매출채권보험 2300억 인수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본부장 박철용)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거래안전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 위해 올 하반기 2300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매출채권보험은 호남지역 2개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11개 영업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입문의 및 상담 062-607-9263.

박철용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민간시장 거래활성화와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인수하겠다"며 "또한 2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창업성장 매출채권보험을 하반기부터 적극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